

## 보건담당자로서의 역할과

# 책임감 느낄수 있는 기회

'86년도 보건관계자 직무보수교육을 지부별로 5.10일부터 시작해서 6월중에 모두 마쳤다.

이 직무교육은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및 보건담당자들이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건강관리 및 작업환경개선등 업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기법습득과 필요한 기술정보를 제공하여 보건관계자로서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이다.

짧은 기간동안의 보건담당자 교육이었지만 교육을 받으며 내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가 찾아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강의를 들으며 새로운 지식을 얻고, 함께 공부하며 다른 보건담당자들과의 동료의식과 친근감도 느껴보며, 이 교육이 보다 나은 사업장의 보건관리,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름길이 되기를 바라며 많은 분들이 교육소감을 써 주셨다. 지면상 보내주신 글들을 전부 실지 못함을 양해 바라며, 사명과 책임으로 교육에 임해 주신 보건담당자 여러분과 지원해 주신 사업주들께 감사드리는 바 이다.

< 편집자 >

### 산업위생보건담당자

풍산금속(주) 김 창 연

정말 유용한 교육이었다고 생각한다. 교육장소에 도착하기 전만 해도 역시 이 교육도 다른 과정과 마찬가지로 지루하고 피곤한 시간배우기가 아닐까 생각했었다. 그러나 막상 강사분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배워가다 보니 나에게 몇가지 의미로 뜻깊은 교육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첫째 보수교육의 기회부여 그

자체이다. 나의 경우 우리 회사의 산업위생보건담당자로 선임은 되어 있지만 실제 업무는 전혀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보건담당자로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다소 어색하였으나 금번 보수교육의 기회로 향후의 담당자로서의 관심과 근로자들의 위생보건에 대하여 무엇인가 기여를 해야겠다는 사명감과 의욕이 생겨났다는 것

이다.

둘째 위생보건의 중요성의 인식이다. 과연, 우리 작업장의 통상적인 작업들이 어떻게 건강장애요인에 노출되어 있으며 또 그 장애요인들이 어느 공정 어느 작업장에서도 얼마나 많은 형태로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깨닫게 되어 새삼 내가 담당하고 있는 일이 우리 1,500명 종업원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는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셋째 경영자 및 관리자의 의식개선의 필요성이다. 현재 우리 공장의 설비운영 및 조업상

태의 여건으로 볼 때 경영자 및 관리자의 위생보전에 관한 관심도가 너무 미약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으며 따라서 이번 교육수강을 계기로 경영자 및 관리자들에게 권유하여 지금부터라도 위생보전을 위하여 과감한 투자를 하고 관심도 배려를

해줄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야겠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금번 교육이 내용의 충실도를 떠나 상기의 몇 가지 의미부여로서도 나에게는 유용하고 뜻깊은 것이었지만 나아가 금번 교육수강자 전원에게도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끝으로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충실한 교육이 되도록 애써주신 보건협회와 강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미래의 밝고 명량한 직업장을 그려본다.

## 산업위생보건담당자

고려종합화학(주) 김 상 수

현대 산업 사회는 고도화 전 문화되어 복잡한 양상을 보이면서 날로 발전해 가고 있다.

이제는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던 시대는 지나갔다. 의식주 보다는 좀더 나은 생활, 좀더 문화적인 생활 가치있는 삶등 의식구조가 바뀌어져 있다. 기업주들 사이에도 후생 복지에 관심이 높으며 종업원들 또한 임금이 얼마냐 보다는 상여금이 몇 %이고 후생 복지는 어느 정도나에 신경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제일 생산, 제이 품질, 제삼 안전에서 이제는 제일 안전 즉,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으며 아울러 환경 관리 및 종업원의 건강 관리와 작업 환경의 개선등 쾌적한 작업장, 명량한 작업 분위기, 의욕적인 작업조건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종업원의 건강이 있어야 기

업이 존재하며 나아가서 수출도 있을 수 있고 흑자 경영을 이루어 국가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 그러나 흔히들 산업 위생이니 보건 위생이니 하면 잘 알고 있는 듯이 말하면서도 막상 대답해 보라고 하면 말 못하는 병어리가 되기 일수이다. 이렇듯 산업 위생, 보건 위생은 우리와 밀접 하면서도 소홀히 생각하기 쉽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쉬운 때문이다.

이번 산업 위생 보건 담당자 교육 수강에 임하기 전까지만 해도 나 역시 똑 같은 생각을 했었다.

회사에서 산업 위생 보건 담당자로 선임 한다고 해도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 했었고 또한 내가 맡은 업무인 환경 관리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여겨 왔었다. 그런데 막상 교육을 수강해 보니 환경 관리와 환경 위생은 너무나 밀접한 관계이며

불가분의 관계임이 분명함을 느꼈다. 소음 및 진동은 물론 분진·악취·매연 등과 중금속 오염등 수질·대기·소음·진동 등 환경관리가 곧 산업 위생임을 알았다. 환경 업무중의 공해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가동이 곧 산업 위생의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과 일치하며 종업원의 건강 관리와 일치한다.

이제 회사에 돌아가서라도 환경 업무에 더욱 노력함은 물론 작업장의 불안정한 요소를 제거함과 안전 장비등의 점검, 특히 보호구 등의 착용 방법과 중요성을 종업원에게 주지는 물론 작업자의 산소 결핍으로 인한 재해 요소가 있는가 확인하여 사전에 이에 대처해서 한사람이라도 불의의 재해로 인한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으며 더욱 산업 위생 보건 담당자의 자부심과 긍지심을 갖도록 해야겠다.

## 산업위생보건담당자

동국무역(주) 구미제1공장 이 은 희

환경기사와 산업위생보건 담당자

단순히 폐수처리의 작은 범위내 환경기사가 어떻게 산업위생보건분야까지 처리할 수 있을까 하던 반감이 비록 짧은 시간동안의 강의였지만 많은 깨달음을 주었다.

수질분야 환경기사인 나의 좁은 소견으로는 중금속이나 다른 폐수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면 그것은 자연만을 해친다는 생각뿐이었는데 그건 곧 인간, 아니 나 자신에게 되돌아 온다

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하루 하루 무심히 지나치는 속에 얼마나 많은 재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조그만 실수가 막대한 재산과 인명 피해를 가져 온다는 생각을 하면 그동안의 안일했던 사고에 참으로 부끄러움을 느낀다.

유해작업 환경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 사례, 응급처치에 대한 기초지식에 대한 강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한 예방책 및 사후수습도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 주었고, 사

업장내의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실제 예와 참고자료는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작업장의 유해환경을 알려주고 산업위생담당자로서 수동적인 입장이 아니라 뭔가 적극적인 방법으로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자각심을 심었다.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작은 범위만을 생각하던 내가 비록 짧은 기간의 교육이었지만 넓은 시야와 책임의식, 어떤 사명감을 느끼게 된 점을 다행스럽게 여기며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의 말은 바 임무가 중요함을 일깨워 주고 싶다.

## 산업위생보건담당자

동양염공(주) 김 경 희

산업위생보건담당자의 일원이기는 하나 주업무가 식당관리인 나로서는 교육의 불필요성을 느끼면서 강의에 임했다.

그러나 강의를 시작되면서 점차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는 스스로 부끄러운 생각마저 들어 열심히 수강하여 많은 것을 배워야겠다는 마음이 일었다.

대다수의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산업재해의 주원인은 안전교육의 부족과 작업환경의 정리

정돈, 관리의 부족이라는 말과 또한 산업재해는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강의내용은 일전 우리 공장에서 발생했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돌이키게 하였다. 그것은 부상자 자신의 육체적·정신적 피해는 물론 소속된 단체의 작업분위기에도 막대한 지장을 끼쳐 손실이 컸었다고 생각된다.

평소 예사롭게 들어오던 기계소리가 진동, 소음으로 종업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커

다란 요인이 된다는 것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을 느꼈다.

또한 전종업원들의 식사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좀더 종업원들의 건강을 위한 규모있는 식단 구성으로 다소나마 생산력향상에 역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노력코자 한다.

이번 교육을 참모로 하여 보다 나은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산업위생담당자로서 해야 할 일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 건강관리보건담당자

동광기업사 윤 연 실

졸업과 동시에 갖게 된 직장 이것 저것 몸에 익히며 사회의 이모 저모를 나의 온 몸에 스며들게끔 하나씩 익혀가고 있던 어느 날.

‘보건담당자 교육’이라는 소리에 이맛살은 찌푸러졌지만 그래도 나의 일이었다.

생소한 거리에서 교육장인 여성회관을 찾아 교육을 담당하실 분들의 얼굴을 그려보기도 하며 교육장으로 향한 발걸.

안내말이 끝나고 본 교육이

시작된 지 얼마나 지났을까.

자꾸 무거워져 오기만 하는 눈꺼풀.

그럭 저럭 하루의 교육과정은 쏟아지는 졸음과 고통스러운 하품의 연발속에서나마 마쳤던 까닭일까?

회사에 돌아와 보니 여기저기 무엇인가 눈에 띄는 것들이 있었다.

하수구 시설, 운동장 구석구석의 빈봉지, 눈에 거슬렸다.

여느 때와 같은 회사의 구조

이고 환경이었는데 마치 전과는 달라 보이는 것 같은 많은 차이를 느꼈다.

보건담당자로서 교육을 받은 나에게 종업원들의 주위 환경을 깨끗이 하는 게 우선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어 오는듯했다.

나 자신부터 솔선수범하는 보건담당자가 되어야겠다는 다짐과 함께 보이는 데로 줍고 닦을 수 있는 또 깨끗한 회사를 만들 수 있는 종업원들이 되라고 설득할 용기가 생겨남에 교육을 받은 마음 뿌듯하다.

## 건강관리보건담당자

한국전력공사부산지사 손 정 숙

교육통보를 받았을 때의 경적되었던 마음과는 달리 교육장 입실과 함께 다른 보건담당자들과의 친근감과 동료의식을 느끼면서 교육을 받고 나니 내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었다.

실상 사업장이나 회사에서의 간호원 또는 보건담당자로서의 위치라는 것은 너무나 막연하고 보잘것 없다고만 느껴오던 나에게 응급처치등을 비롯한 강

의내용은 많은 도움을 주었을 뿐 만 아니라 의무실 간호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해 주었다.

또한 의무실에서의 업무란 그저 단순하며 어려울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해 왔으나 이번 교육을 통하여 얼마만큼 힘들고 바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새삼 느끼게 된다.

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관해 그동안 무관심 해왔고 건강진

단실시 후 직원들의 많은 질문에 대한 나의 설명이 부족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번 교육은 근로자의 건강을 돌봐야 하는 보건담당자로서의 나의 역할과 앞으로의 마음가짐과 책임감을 일러줬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교육’이라는 딱딱한 고정관념을 깨고 정기적인 이런 교육은 의무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한다.